

2008년 7월 20일 서울시 9급 국어 복원 문제 해설

최지평 교수

1. 다음 중 한자 표기가 옳게 된 것은?

- ① 妄覺
- ② 妄却
- ③ 忘刻
- ④ 忘却
- ⑤ 望覺

출제 유형 : 실용한자어의 정확한 표기

해설 : ‘어떤 사실을 잊어버림.’의 뜻으로 ④忘却(잊을 망, 물리칠 각)이 맞다. ①妄覺(망각)은 심리학에서 외부 세계의 자극을 잘못 지각하거나 없는 자극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병적 현상을 일컫는 단어이다. 착각과 환각으로 나뉜다. 이럴 경우, 문제에서 그 뜻을 제시하고 한자 표기의 옳고 그름을 물어야 한다. 정답 ④

2. 다음 한자의 표기가 바르지 못한 것은?

- ① 情話
- ② 贖罪
- ③ 死滅
- ④ 被動
- ⑤ 盛衰

출제 유형 : 한자어의 정확한 표기

해설 : ① 情話(정화)는 정담(情談)과 같은 뜻으로 ‘남녀가 정답게 이야기를 주고받음. 또는 그 이야기’를 말한다. 사실 ‘정화’라는 단어는 표준국어대사전에 14건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정화(불순하거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함.)’는 ‘淨化’로 표기해야 한다. 이 문제도 1번처럼 선택지에서 그 뜻을 명기해 주어야 한다. 아무래도 복원문제라서 그런지 문제의 완결성이 부족하다. ‘정화(불순하거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함.)’의 의미로 보았을 때 표기가 잘못된 것은 ①번이다. ②贖罪(속죄) ③死滅(사멸) ④被動(피동) ⑤盛衰(성쇠) 등으로 바르게 표기되었다. 정답 ①

3. 다음 중 품사가 다른 하나는?

- ①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
- ② 예상한 바와 같이 주가가 떨어졌다.
- ③ 전에는 더러 갔지만은 요새는 그곳에 가지 못한다.
- ④ 방 안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 ⑤ 놀고 싶을 때 실컷 놀아라.

출제 유형 : 품사의 구분

해설 : ①의 ‘대로’는 체언 뒤에 쓰이면 붙여 써서 조사, 관형사형 뒤에서는 띄어 써서 의존 명사가 된다. ①의 경우 ‘원하는(관형사형)’의 뒤에 쓰였으므로 의존 명사이다. ②의 ‘같이’는 체언 뒤에 쓰이면 붙여 써서 조사, 또 주로 격조사의 뒤에서는 띄어 써서 부사로 쓰인다. ③④⑤와 함께 ②도 부사로 쓰였다. 정답 ①

정답 ①

4. 다음 시에서 서정적 자아의 정서 변화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새로 걸러낸 막걸리 젓빛처럼 뿌옇고
큰 사발에 보리밥의 높기가 한 자로세.
밥을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
검게 탄 두 어깨 햇빛 받아 번쩍이네.
응혜야, 소리 내며 발 맞추어 두드리니
삼시간에 보리 낱알 온 마당에 가득하네.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보이느니 지붕 위에 보리 티끌뿐이로다.
그 기색을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네.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닌데
무엇하려고 벼슬길에 헤매고 있으리요.

- 보리타작(打麥行타맥행) / 정약용

- ① 장소를 옮겨가며 장면을 묘사
- ② 낮에서 밤으로 시간이 바뀜.
- ③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시선이동
- ④ 계절의 순번에 따른 분위기의 변화를 노래
- ⑤ 외적 상황을 먼저 제시한 후 내면세계 드러냄.

출제 유형 : 정서의 변화 파악

해설 : 보리를 타작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뒤, 노동하는 삶 속에 낙원이 있음을 밝히며 벼슬길을 해맸던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있는 한시이다. ⑤ 외적 상황을 먼저 제시한 후 내면세계 드러내고 있다.

다산(茶山)의 한시 작품은 실학사상을 배경으로 사회 제도의 모순, 관리나 토호들의 횡포, 백성들의 고뇌, 농어촌의 가난 등이 그 주제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그의 시는 대부분이 현실적인 면을 사실적으로 그렸으며, 시어(詩語)도 평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보리타작'도 가난을 딛고 건실하게 일하는 농민의 건실적인 모습을 보이는 바, 악부(樂府)시 체에서 전화한 한시의 한 체인 '행(行)'을 그 형식으로 하고 있고, '타맥행'은 다산 문학의 특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시이다. 이것은 농민의 생활에서 취제한 것이요, 여기에서 농민은 일하는 농민이다. 다산 정약용 자신이 생산과 그 노고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농민과 한 마음이 되어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사실적으로 노래한 농부가인 것이다. 또한 '막걸리, 보리밥, 도리깨, 보리알' 등 평민적인 시어들은 한결 친밀감을 주면서 보리타작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 선하다. 그리고 씩씩하게 두드리는 도리깨 소리로써 가난을 딛고 일어서려는 곳곳한 의지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건강하고 생동하는 농민들의 삶에서, 시인은 인생의 즐거움을 찾아내고 있으며, 당시 새롭고 가치 있는 삶을 평민들의 현실 세계에서 찾고자 하는 당시 진보적 지식인들의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정답 ⑤

<작품 해설>

- 갈래-한시, 서정시, 리얼리즘 시
- 연대-1801년
- 구성-4단, 선경후정
- 성격-사실적, 반성적, 평민적, 현장성
- 사상-실사구시의 실학사상
- 제재-보리타작
- 주제-농민들의 보리타작의 모습을 보고, 그 노동에서 얻는 즐거움을 보고 자신의 삶을 반성 혹은 노동에서 얻는 즐거움/농민의 건강한 삶이 곧 가치 있는 삶이다.

5. 박지원의 작품 중 직업에는 귀천이 없음과 신용이나 부지런함을 강조하여 서민들에게 큰 힘을 주었던 작품은?

- ① 허생전, 양반전
- ② 예덕선생전, 광문자전
- ③ 호질, 열하일기
- ④ 역학대로전

⑤ 열녀합양박씨전

출제 유형 : 고전소설의 이해

해설 : 박지원 소설의 특징은 풍자적·사실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대는 변화하고 있는데 그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는 사오정 같은 위정자, 학자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던 연암은 그들을 혼낼 수 있는 방법으로 풍자를 선택한 것이다. 그리하여 연암의 소설에 등장하는 많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풍자의 똥침을 맞고 우스운 꼴을 보여주게 된다. 또한, 그는 서민들의 삶에도 깊은 관심을 보여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여 현재의 비평 수준으로 보더라도 뛰어난 여러 편의 소설을 완성시켰다. 특히, ② ‘예덕선생전(인분 나르는 직업을 가진 엄행수)’과 ‘광문자전(다리 밑에 사는 걸인 광문)’은 하층민의 삶을 긍정적 시선에서 그려낸 수작이다. 정답 ②

6. 다음 소설의 밑줄 친 부분의 의미는?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인 것이다. 내나 아내나 제 거동에 로직을 붙일 필요는 없다. 변해할 필요도 없다.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없이 발을 절뚝거리면 서 세상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

그러나 나는 이 발길이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옳은가 이것만은 분간하기가 좀 어려웠다. 가야하 나? 그럼 어디로 가나?

이때 뚜우 하고 정오 사이렌이 울었다. 사람들은 모두 네 활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덕 거리는 것 같고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수선을 떨고 하는 것 같은 찰나! 그야말로 현란을 극한 정오다.

나는 불현듯 겨드랑이가 가렵다. 아하,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서는 희망과 야심이 말소된 페이지가 덕서너리 넘어가듯 번뜩였다.

나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일어나 한 번 이렇게 외쳐 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돌아라.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 보자꾸나.

- ① 생의 의지
- ② 본능적 욕구
- ③ 미래의 몽상
- ④ 과거의 기억
- ⑤ 아내에 대한 사랑

출제 유형 : 소설 소재의 상징성

해설 :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란 주인공의 외침은 마지막으로 취할 수 있는 '탈출 의지'의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날개'의 상징적 의미는 정상적인 삶으로의 복귀를 의미한다. 정답 ①

7. 다음 시에서 밑줄 친 부분을 고려할 때 서정적 자아의 정서의 흐름으로 옳게 된 것은?

당신의 손끝만 스쳐도 소리 없이 열릴 돌문이 있습니다. 못사람이 조바심치나 굳이 닫힌 이 돌문 안에는, 석벽 난간 열두 층계 위에 이제 검푸른 이끼가 앉았습니다.

당신이 오시는 날까지는, 길이 꺼지지 않을 촛불 한 자루도 간직하였습니다. 이는 당신의 그리운 얼굴이 이 희미한 불 앞에 어리울 때까지는, 천 년이 지나도 눈 감지 않을 저희 슬픈 영혼의 모습입니다.

길습한 속눈썹에 향시 어리운 이 두어 방울 이슬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남긴 푸른 도포 자락으로 이 눈썹을 씻으렵니까? 두 볼은 옛날 그대로 복사꽃빛이지만, 한숨에 절로 입술이 푸르려 감을 어찌합니까?

몇 만 리 굽이치는 강물을 건너와 당신의 따스 손길이 저의 목덜미를 어루만질 때, 그때야 저는 자취도 없이 한 줌 티끌로 사라지겠습니다. 어두운 밤하늘 허공 중천에 바람처럼 사라지는 저의 옷자락은, 눈물 어린 눈이 아니고는 보이지 못하오리다.

여기 돌문이 있습니다. 원한도 사무칠 양이면 지극한 정성에 열리지 않는 돌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오셔서 다시 천 년토록 앉아 기다리라고, 슬픈 비바람에 낡아 가는 돌문이 있습니다.

- 석문(石門) / 조지훈

- ① 그리움, 지겨움
- ② 기다림, 원망감
- ③ 기대감, 상실감
- ④ 느긋함, 조급함
- ⑤ 자책감, 혐오감

출제 유형 : 시적 정서의 변화

해설 : 때로는 시가 원한에 사무친 영혼의 하소연을 담고 있어 읽는 이로 하여금 가슴 섬뜩한 전율을 느끼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 시는 경북 영양 일월산에 있는 황 씨 부인 사당에 전해지는 전설을 소재로 한 시이다.

우연한 오해로 인해 첫날밤을 치르기도 전에 버림받은 한 여인네가 끝까지 남편을 기다리며 정절을 지키다가 죽은 이야기는 서정주의 시『신부』에서도 볼 수 있다. 이 시의 구성은 ‘기다리는 돌문(제1연), 슬픈 영혼의 모습(제2연), 눈물과 한숨(제3연), 티끌로 사라짐(제4연), 원한이 사무친 돌문(제5연)’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때, ‘기다림에서 원망(한)’으로의 정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정답 ②

<작품 해설>

- 제재 : 버림받은 신부(新婦)의 하소연(경북 영양 지방의 전설)
 - 주제 : 풀리지 않는 원한(怨恨). 버림받은 여인의 한(恨)
 - 특징: 이 작품은 작자의 고향 근처 일월산 '황 씨 부인당'에 전해지는 전설을 소재로 한 산문시이다
 - 감상 : 일월산 밑의 황 씨 처녀가 시집간 첫날밤이었다. 화장실에 갔다 온 신랑이 문창호지에 비친 칼의 그림자가 자신의 연적이라고 생각하고 도망갔다. 그러나 그것은 대나무의 잎이었다. 죽두리도 벗지 못하고 기다리던 신부는 한을 품고 결국 세상을 떠났다. 신부의 시신은 그대로 삭지 않았다. 후에 그 신랑이 일월산 아래 부인당을 모시고 사당까지 지어 바치고서야 신부의 시신이 삭아 넘어졌다는 '일월산 황 씨 부인당'의 전설을 소재로 장시로 원한에 사무친 영혼의 목소리가 경어체로 호소하는 듯 표현되었다.
- 푸념하는 듯한 담화의 요소를 담아 기다리는 사랑의 깊이(그리움)와 원한에 사무친 하소연의 정서가 표현되었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열리지 않는 돌문이 당신의 따뜻한 사랑에 의해서 열릴 것을 기다리는 여인의 한이 나타났다

8. 다음 밑줄 친 소재에서 감정이입 된 표현이 아닌 것은?

비로봉 동쪽은 아낙네의 살결보다도 흰 자작나무의 수해(樹海)였다. 설 자리를 삼가, 구중심처(九重深處)가 아니면 살지 않는 자작나무는 무슨 수중(樹中) 공주이던가! 길이 저물어, 지친 다리를 끌며 찾아든 곳이 애화(哀話) 맺혀 있는 용마석(龍馬石) —— 마의 태자의 무덤이 황혼에 고독했다. 능(陵)이라기에는 너무 초라한 무덤 —— 철책(鐵柵)도 상석(床石)도 없고, 풍우에 시달려 비문조차 읽을 수 없는 화강암 비석이 오히려 처량하다.

마의 태자 무덤에서 느껴지는 처량함

무덤가 비에 젖은 두어 평 잔디밭 테두리에는 잡초가 우거지고, 석양이 저무는 서녘 하늘에 화석(化石)된 태자의 애기(愛騎) 용마의 고영(孤影)이 슬프다. 무심히 떠도는 구름도 여기서는 잠시 머무르는 듯, 소복(素服)한 백화(白樺)는 한결같이 슬프게 서 있고, 눈물 머금은 초저녁 달이 중천(中天)에 서럽다.

- 산정무한 / 정비석

- ① 자작나무
- ② 무덤
- ③ 비석
- ④ 구름
- ⑤ 달

출제 유형 : 감정이입의 표현

해설 : 정비석의 '산정무한' 가운데 마의태자의 묘를 지나며 생의 무상감에 젖은 있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자작나무'는 인생의 허무를 드러낸 감정이입의 표현이 아니라 '마의태자'를 비유한 표현이다. 왕족으로서 고고한 속성을 '자작나무'로 표현한 것일 뿐 작가의 감정을 읊긴 대상은 아니다. ②,③,④,⑤는 작가의 처량한 감정과 서글픔을 읊긴 대상물이다. 정답 ①

9. 다음 중 나를 기준으로 촌수가 가장 먼 것은?

- ① 고모
- ② 당숙
- ③ 백부
- ④ 숙부
- ⑤ 외종형

출제 유형 : 친족 간의 촌수

해설 : ② 당숙(종백숙부)은 아버지의 사촌형제로 나와는 5촌 간이다. 고모, 백부, 숙부는 3촌 간, 외종형은 외삼촌의 아들로 나와 4촌 간이다. 정답 ②

10. 다음 중 복수표준어가 아닌 것은?

- ① 가뭍-가물
- ② 고깃간-푸줏간
- ③ 땃돌-뿔돌
- ④ 살고기-살코기
- ⑤ 벌레-버리지

출제 유형 : 복수 표준어의 이해

해설 : '살고기'는 '살코기'로 표기한다(한글맞춤법 제31항 2-ㅎ뎃생기는 체언의 잔존).

정답 ④

11. 다음 중 표준어가 아닌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 ① 돌잔치, 덧니, 뒷마루
- ② 강낭콩, 사흘날, 꺾꽂이
- ③ 사글세, 숟가락, 셋방
- ④ 꼬나풀, 여닫이, 아무튼
- ⑤ 털어먹다, 홀몸, 햇볕

출제 유형 : 표준어의 이해

해설 : ② 사흘날→사흘날(한글맞춤법 제29항), 꺾꽂이→꺾꽂이(한글맞춤법 제27항)

정답 ②

12. 다음 중 표기가 옳게 된 것은?

- ① 깍뚝이
- ② 곰곰히
- ③ 배불뚜기
- ④ 삼질날
- ⑤ 늣수그레하다

출제 유형 : 한글맞춤법의 이해

정답 :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한글맞춤법 제21항). 따라서 ‘늣다+수그레하다’의 경우 ⑤와 같이 표기한다. ①깍두기 ②곰곰이 ③배불뚝이 ④삼질날 등으로 표기한다.

정답 ⑤

13. 다음 단어들의 발음이 잘못된 것은?

- ① 밝고→[발꼬]
- ② 밟다→[발따]
- ③ 찢지→[찢찌]
- ④ 넓다→[널따]
- ⑤ 맑게→[말게]

출제 유형 : 표준 발음

해설 : ②뱃다→[뱃:따]가 바른 발음이다. ‘뱃-’은 자음 앞에서 [뱃:]으로 발음한다(표준발음법 제10항 ‘다만’의 규정). 정답 ②

14.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물론, 나에게 멀리 군속(群俗)을 떠나 고고(孤高)한 가운데 처하기를 원하는 선골(仙骨)이 있다거나, 또는 나의 성미가 남달리 괴팍하여 사람을 싫어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역시 사람 사이에 처하기를 즐거워하고, 사람을 그리워하는 ()의 하나요, 또 사람이란 모든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가장 아름다운 존재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사람으로서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사람 사이에 살고, 사람 사이에서 울고 웃고 부대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록예찬 / 이양하

- ① 인지상정
- ② 죽마고우
- ③ 팔방미인
- ④ 갑남을녀
- ⑤ 동량지재

출제 유형 : 문맥에 맞는 한자성어

해설 : 한자성어나 속담 등의 관용어는 비유 표현으로 널리 쓰이므로 앞뒤 문맥을 근거로 유추해야 한다. ‘나는 역시 사람 사이에 처하기를 즐거워하고, 사람을 그리워하는~’을 고려할 때, 보통의 사람들을 뜻하는 ④가 정답이다. 정답 ④

15. 다음 중 어법이 옳게 된 문장은?

- ① …말겠다고
- ② 눈물 젖은 빵을 먹어 본 사람들만이 쌀 한 톨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안다.
- ③ …틀리다
- ④ 제일동포들은 일본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 하지만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
- ⑤ 이 진공청소기는 소음과 제동력을 높이기 위해 …

출제 유형 : 어법에 맞는 문장

해설 : ④가 주술관계상 맞는 문장이다.

②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 얼마나 귀중한지를(얼마나 ~ 지를 /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

③은 ‘다르다’와 ‘틀리다’의 구분에 대한 문장(용언의 사용)일 것이다.

⑤소음과 제동력을 높이기 위해 → 소음을 줄이고 제동력을 높이기 위해(서술어의 부당한 공유 문제) 정답 ④

16. 다음 중 로마자 표기가 잘못된 것은?

- ① 경북궁 Gyeongbok-gung
- ② 낙성대 Nakseongdae
- ③ 도봉구 Dobong-gu
- ④ 퇴계로 3가 Toegyero 3(sam)-ga
- ⑤ 학여울 Hangnyeoul

출제 유형 : 국어의 로마자 표기

해설 : ‘경복궁’과 같은 문화재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로마자 표기법 제3장 제6항)
따라서 Gyeongbokgung으로 표기해야 한다. 정답 : ①

17. 다음 <보기>의 내용을 서론, 본론, 결론으로 알맞게 짝지어 나눈 것은?

a. 청소년 문화의 중요성 강조
b. 청소년 비행의 뜻
c. 향락적 분위기
d. 청소년 비행의 실태
e. 전인 교육 강화
f. 가치 뜻 부재
g. 사랑, 관심 촉구
h. 퇴폐문화로부터 청소년 보호

	<서론>	<본론1>	<본론2>	<결론>
①	g	bc	ad	eh
②	bc	ae	fh	dg
③	bd	cf	eh	ag
④	bd	ch	ef	ag
⑤	cf	d	egh	a

출제 유형 : 논설문의 개요 작성

정답 : <보기>의 개요를 토대로 이 글은 ‘청소년 비행의 문제점과 보호 대책’에 대해 논한 글이다. 이러한 내용의 논설문은, 먼저 용어의 정의(b)와 그 현황(실태-d)을 서론으로, 그 원인(c와 f)을 본론의 앞부분에 대책(e와 h)을 본론의 뒷부분에 두고, 우리들의 자세(a와 g)를 언급한 내용을 결론으로 구성하면 바람직하다. 정답 ③

18. 아래 보기에서 밑줄친 단어의 문맥적 의미가 동일하지 않은 것은?

<보기> ◦
◦

- ① 묻어
- ② 따로
- ③ 까서
- ④ 명이 든 / 맛이 든
- ⑤ 들이면

출제 유형 : 어휘의 문맥적 의미

해설 : ‘명이 들다’는 ‘상처가 생기다’, ‘맛이 들다’는 ‘음식의 맛 따위가 익어서 알맞게 되다’
정답 ④

19. 다음 작품에서 약수(弱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어휘는?

天上(천상)의 牽牛우織女녀 銀河水(은하수) 막혀서도, 七月 七夕(칠월 칠석) 一年一度(일년일도) 失期(실기)치 아니거든, 우리 님 가신 후는 무슨 弱水(약수) 가렛관디, 오거나 가거나 消息(소식)조차 쓰쳤는고.
-규원가 / 허난설헌

- ① 청산
- ② 구름
- ③ 호박꽃
- ④ 명월
- ⑤ 도화행화

출제 유형 : 시어의 함축적 의미

정답 : ‘규원가’에서 ‘弱水(약수)-신선세계로 들어가는 江-’는 임과 나와의 장애물이란 뜻으로 부정적인 의미이다. 아마 선택지에서 열거된 어휘로 볼 때, 각각 개별 작품들 속에서 나타난 시어들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라는 문제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구름’이라는 소재는 부정적 의미로 읽히는 작품들이 많다. 정답 ②

20. 다음 중 민요에 가까운 4행 향가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모죽지랑가
- ② 서동요
- ③ 풍요
- ④ 현화가
- ⑤ 도술가

출제 유형 : 향가의 형식

해설 : ②, ③, ④, ⑤는 4구체(4줄, 즉 4행으로 구성) 형식으로 민요에 근접한 형식의 향가이다. 4구체는 세계적으로 민요의 보편적 형식이다. 득오가 지은 ‘모죽지랑가’는 8구체 향가로서 10구체로 가는 과도기적 형식의 향가이다. 정답

①